

스토리 테마파크 웹진 ‘담談’

2014.12 10호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

- COVER STORY - 역사의 징검다리를 연결하여 만들어내는 무한한 스토리 창작의 힘
- COVER STORY - 작가를 꿈꾸는 4인의 여대생이 본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
- 취재(1) - 창작자들에게 듣는 옛 기록의 ‘이야기’
- 취재(2) - 5개의 공공기관 정통창작소재의 구축과 활용

열 번째 ‘담談’

김상헌

지난 11월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옛 기록의 다양한 가치와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였습니다.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 창작자들에게 기록 및 전통창작소재의 접근과 활용에 대해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5개의 주관 기관에서는 각각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다년간 구축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역사콘텐츠에 대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옛 기록과 전통소재의 무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담談’ 10호에서는 그 시간을 담아 보았습니다.

시인이자 ‘전통’과 ‘현대’의 소통을 고민하는 역사콘텐츠 전공자인 조정미 작가는 “역사의 징검다리를 연결하여 만들어내는 무한한 스토리 창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를 소개합니다.

컨퍼런스의 구석구석을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 찾아다니며 현장의 분위기와 표정을 생생하게 담아 주었습니다. 윤가을, 강하나, 유지현, 김승희 학생은 “작가를 꿈꾸는 4인의 여대생이 본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를 제목으로 참석자의 목소리를 담았고, 김정은, 홍아영 학생은 5개 주관 기관을 소개하고 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의 특징과 콘텐츠를 소개했습니다. 이진아, 연태영 학생은 “창작자들에게 듣는 옛 기록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6명의 강연자와 발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동근 화백이 컨퍼런스 현장을 2컷의 만화로 전합니다. 덧붙여 송동근 화백께 감사와 아쉬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담談에서 당분간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백의 담화>를 통해 따뜻하고 섬세하게 역사속의 일상을 담아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곧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 마지막 달, 열 번째 ‘담談’ 발행을 앞두고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담談’은 여러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떠들썩하지 않고 단정하게 표현하며, 여기에 옛 정신과 현대 정신을 균형 있게 표현하려는 뜻과 의지를 담아 지난 3월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동안 만화가, 음악 칼럼니스트, 영화 감독, 소설가, 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일기 속 이야기를 활용한 창작물로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일기 자료를 활용한 창작물을 선보이며 기록 자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담談’.

지난 4일, ‘담談’을 처음 기획한 자리에서 편집위원과 작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가능성을 따져보고,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하원준 감독과 송동근 작가는 초기에 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작가의 접근과 작품을 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고순정 작가도 “전통소재를 다루고 싶어 하는 작가들이 많지만 그 시작을 어렵힌다.”고 공감하며 편집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담談’은 PC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데, 많은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바일 및 다양한 플랫폼에 따른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덧붙여 다양한 창작자 그룹의 프로젝트와 활용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담談’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까지... 꼼꼼한 평가와 애정 가득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2014년 12월 4일 담談대담>

조금 더 나은 ‘담談’으로 2015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 담談을 위해 애써 주신 분들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편집위원 | 고순정, 김상헌, 김수영, 최희수, 하원준

기획 | 한국국학진흥원 디지털국학센터 이상호, 정재석, 김민옥

제작 | ㈜엠엔씨마루 김용범, 김기해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

“역사의 징검다리를 연결하여 만들어내는 무한한 스토리 창작의 힘”

조정미

역사콘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종실록에 등장하는 의녀 장금에 대한 짧은 기록이 한류드라마 대장금의 폭발적 인기를 이끌어내었고, 광해, 명량, 활, 정도전과 같은 다양한 역사영화와 사극은 역사적 배경과 소재를 활용하여 생생한 즐거움과 독특한 색깔을 갖춘 콘텐츠로 탄생하였다.

이러한 역사콘텐츠의 인기몰이를 가능케 한 기반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료는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역사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의 창작자들은 역사전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역사적 소재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한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역사기록의 국역작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서비스의 실현이 이루어져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역사콘텐츠의 공유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20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인문정신과 전통창작소재 국제 콘퍼런스는 바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낸 다섯 개의 기관이 뜻을 함께 하여 개최한 행사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주관하였다. 기관별 사업소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작년도 콘퍼런스에서 진일보하여 국내외 역사콘텐츠 활용의 성공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 콘퍼런스 주관 기관 홍보부스 >

필자는 역사콘텐츠를 전공하는 연구자이자 작가이자 출판인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다양한 관심사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관심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프로 창작자, 창작지망생, 연구자, 전공자 뿐만 아니라 역사와 역사콘텐츠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들었다. 그 결과 사전등록이 일찍이 마감되는 사태로 이어졌고, 사전등록의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시간이 길어져 행사 시작이 늦춰질 정도였다. 대강당 좌석이 거의 채워졌으며, 각자 중요한 사항을 받아 적고 스마트폰 촬영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사전등록 신청자>



<대강당을 가득 채운 참가자>

기조발표의 첫 번째 시간은 프랑스의 역사테마파크인 뤼뒤푸(PUY DU FOU)의 인터네셔널 프로젝트 매니저인 에르완 드라 빌레옹(Erwan de la Villeon)이 소개하는 뤼뒤푸의 성공스토리였다. 뤼뒤푸는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마파크에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역사를 이 시대에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 과정에서 기술의 도움을 받고 현대성을 반영하여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에 주력함으로써, 세계의 일반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역사테마파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에르완 드라 빌레옹(Erwan de la Villeon) 프로젝트 매니저>

두 번째 기조발표는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주진오 교수가 “전통문화자산의 가치와 그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한국전통문화자산의 가치와 활용의 가능성을 이론과 정책에 기반하여 소개해주셨다. 일본의 네오 재패니스크(Neo Japanese), 중국의 공자 콘텐츠,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브리튼(Creative Britain)과 같은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 기반 브랜드화 사례와 같이, 한국의 향후 전통문화 브랜드 전략의 방향성과 실질적 노력에 대한 고민을 모두에게 던져준 자리가 되었다.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주진오 교수〉

기조연설 후에는 주최측에서 마련한 점심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식사시간은 등록번호에 따라 시간이 배분되어 기다리는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식사를 하기 전이나 마친 후의 여유시간에는 5개 단체의 소개 부스를 관람하거나, 각종 음료를 즐기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자투리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어진 오후의 첫 세션은 “전통 기록 자료의 가치와 활용을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소설가 성석제 소설가와 박시백 만화가의 발표가 이어졌다. 두 작가의 공통점은 실제 사료를 기반으로 소설과 만화를 창작하였다는 점이다. 성석제 작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로서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분이다. 고전을 기반으로 하는 소설작품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향인 상주의 묻혀 있는 인물지 중 하나인 “오봉선생실기”를 기반으로 쓴 장편소설 <인간의 힘>이다. 사실과 픽션을 놓고 소설을 쓰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한국에서 실존인물로 소설을 쓰기란 어려운 일인데, 허구와 역사가 뒤섞여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 역사를 다루는 것은, 주인공을 렌즈로 하여 다른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성석제 작가〉



〈박시백 작가〉

박시백 만화가는 만화 조선왕조실록 20권을 완간하기까지의 과정과 조선왕조실록의 의미, 아쉬운 점 등을 만화가다운 흥미진진함으로 이야기해주셨다. 한겨레신문 시사만화가로 5년을 지내던 중, 조선왕조실록 CD-롬이 출시되면서 접하게 되고, 이것을 만화화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일단 한겨레신문을 그만 두고 11년 동안 작업하여 20권을 출간하게 된다. 준비기간 2년까지 합치면 총 13년이 걸린 대작이다. 조선왕조실록을 공부하면서 느낀점은 “위대함”과 “엄정함”으로서, 기록의 보존과 관련한 선조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연구와 보급의 빈약함으로 인해 잘못된 상식이 만연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조선왕조실록의 대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학자는 물론 작가들도 잘못된 지식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정극을 다루는 경우에는 제대로 공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

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만약 조선왕조실록이 국역되어 CD-롬으로 출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박시백의 만화 조선왕조실록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으니, 풍부한 콘텐츠의 보고인 실록을 누가 더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누가 더 열심히 접근하고 공부하느냐에 딸린 듯싶다. 왕조별로 빠르게 손으로 노트 정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구성하여 콘티 작업을 하면서 탄생시켰다는 조선왕조실록 탄생기 중에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등장인물을 그리는 데에 있어서 사진이나 초상화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참조하였으나, 그것이 남지 않은 사람들은 성격이 드러나도록 하였는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지라, 이들을 모두 다 다르게 그리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문뜰으로 들어온 학원 전단지엔 실린 학원 선생님의 얼굴들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셨단다. 그 분들은 그렇게 해서 만화에 등장하셨다고.

오후 두 번째 세션은 “전통 기록 자료의 활용 가치와 문화산업적 성공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드라마에 초점이 맞춰진 두 가지 발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미드 “House of cards”의 감독인 제임스 폴레이(James Foley) 감독이 촬영일정 문제로 내한하지 못하여, 제작사인 “MRC(Media Rights Capital)”의 조 힙스(Joe Hips) 부사장이 “House of cards의 협업시스템과 비즈니스 전략”을 대담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미국 정계를 배경으로 하는 정치드라마로서 “미드 중의 미드”라고 불리워지는 “House of cards”는 기존 드라마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다. 첫째로는 하나의 시즌에 해당하는 13편이 동시에 공개되는데,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의 배급시스템인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제작방식에 있어서 여러 명의 감독과 여러 명의 작가가 함께 작업하는 협업시스템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발표내용에서는 협업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시즌별로 여러 감독이 작업을 하는데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1-2편의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먼저 결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의 감독들은 첫 번째 감독의 결을 따르는 방식을 택한다고 한다. 작가 역시 여러 명의 작가들이 5개월 정도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들 안에는 위계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석작가에게 최종결정권이 부여된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하여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비전의 공유, 상호존중, 중심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 힙스(Joe Hips) 부사장>



<정현민 작가>

두 번째 발표자는 2014년을 대표하는 인기드라마 “정도전”의 정현민 작가였는데, 최고의 이야기꾼다운 탁월한 말솜씨로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현민 작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드라마 작가가 된 케이스로서, “정도전”은 정현민 작가에게 최초의 사극 집필이다. 역사적 상식과 너무 벗어나는 사극은 보기에 버겁다는 전제 하에, 야사보다는 정사 중심의 정통사극을 지향하는 것을 방향성으로 삼았다. 또한 기존 대하드라마

보다는 가볍게, 퓨전 드라마보다는 무겁게 함으로써 시청 층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익숙한 이야기더라도 캐릭터에 변화를 주면 색달라 보인다는 생각 하에 함경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이성계라든가 악인이지만 상당한 인생의 관록을 보여주는 부드럽고 예의바른 고려시대 귀족 이미지의 이인임 같은 캐릭터에 주력하였다고 한다.

사극을 처음 집필하는 작가로서 정현민 작가는 정도전 집필 과정에서 역사 콘텐츠 DB, 역사논문, 단행본 도서 등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했는데 작은 에피소드 하나라도 개경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공부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현민 작가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대목은 역사 속의 소재들을 징검다리에 비유하여, 창작자가 징검다리를 소재로 삼아 무한한 이야기의 나라를 펼쳐나간다는 표현이었다. 또한 당대의 현실이 사극에 작용하기 때문에, 옛날이야기지만 현대가 사유되지 않으면, 재미는 있어도 감동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많은 참석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전체 참석자가 모두 무대에 올라가 한 시간 가량의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루 종일의 일정을 기다려준 참석자들과, 자리를 지켜준 많은 참석자들의 편안하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소식. 성석제 소설가는 차기 작품으로 1600년대 후반의 불학무식한 중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예송논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선비들의 모습과 논리를 보여주는 소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박시백 만화가는 다시는 역사물을 그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많은 권유를 받게 되어 고려시대와 일제강점기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하는 만화를 그릴 계획이라고. 정현민 작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삼별초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기획중이라고 한다. 정현민 작가는 대중이 역사를 많이 알게 될수록 관심은 높아지게 되어 있으며, 역사에 대한 기반이 높아질수록 역사콘텐츠의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종합토론,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성석제 작가>

푸뒤푸의 에르완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에 전통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으며, 이번 콘퍼런스가 역사적 인식의 중요성과 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생생하게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삼랑진고등학교 여고생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축제의 경우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흥미요소가 필요하며, 기존 역사속의 모티프를 기반으로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에르완 드라 빌레옹에게 질문하는 삼량진 고등학교 여고생과 답변하는 에르완〉

역사적 소재를 모티프로 하는 스토리 창작의 자유.
 역사의 징검다리를 연결하여 만들어내는 무한한 스토리 창작의 힘.
 우리의 창조적 상상력은 역사의 광산을 어떻게 스토리 마이닝하여야 할까?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만들었다. 큰곰 자리, 작은곰 자리. 오리온의 허리띠 삼태성. 눈물을 흘리는 카시오페이아 왕비. 스토리가 입혀진 밤하늘은 수많은 영감을 불어넣어주었다. 우리의 역사기록 역시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진 스토리의 보고이다. 어떤 역사기록이 창작자의 손길을 거쳐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될지 모를 일이다. 한국적인 전통에 기반하면서도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낼 보편성을 확보한 글로벌 콘텐츠의 창작을 기대한다. 우리의 소중한 옛 기록, 이야기로 활짝 피어나기를!!!

■ 작가 소개

조정미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언론대학원에서 문학과 출판을 전공했다. 월간 현대시에서 신인 추천문학상으로 시인으로 등단하였고, 교보문고에서 12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환경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상명대학교 사학과 역사콘텐츠 전공 박사과정에서 수학중이다. 주요 관심사는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으로서, 역사콘텐츠를 공부하는 목적 역시 분열과 단절을 극복할 정체성과 원형을 역사 속에서 찾기 위해서다.

[Cover Story]

작가를 꿈꾸는 4인의 여대생이 본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윤가을, 강한나, 유지현, 김송희

“저는 프랑스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매우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박시백 만화가 강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예기를 하시는데, 저는 옛날 것들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변하는 것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나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만화로 그릴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 열정적인 박시백 만화가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 전공 김시는

“저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입니다. 고전에서 원작이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잘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싶기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며 창작자들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창작물로 끌어낸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PUY DU FOU에 대한 것인데요, 한이 서린 장소를 문화적인 테마파크로 만든 것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웠고, 인상 깊네요.”

행사에 참석한 시나리오 작가

“저는 제가 속한 협회(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의 추천을 받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박시백, 정현민 작가님의 강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박시백 작가님이 강연 중에 ‘승자가 기록한 게 아니라 기록한 자가 승자’라는 말과, 역사극은 ‘어떤 시대를 썼는가 보다 어떤 시대에 글을 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정현민 작가의 말이 크게 남습니다.”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회원



<인문정신과 전통창작소재 국제콘퍼런스 참석자로 가득한 행사장> 그림 송동근

안녕하세요? 한양여자대학교 취업동아리 웨비(Webbe)에서 11월 20일에 주최된 국제 콘퍼런스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에 학생기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맡게 된 윤가을, 강한나, 유지현, 김송희입니다.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인문정신과 전통창작소재에 관련된 여러 발표들 그리고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창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천소재로서 한국의 전통, 특히 ‘옛 기록’이 가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더욱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학 관련 여러 기관의 공동주관으로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규모가 큰 콘퍼런스였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총 다섯 곳에서 주관했습니다. 국제콘퍼런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통적 소재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국내외 창작현장 전문가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퍼런스는 이촌역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강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연은 오전 11시부터 시작이지만 현장 스케치할 사진들을 찍기 위해 한 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대강당에 들어서면 우측에 바로 인포메이션이 보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인포메이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발표가 시작하기 전에 인포메이션은 데스크 자체에서 사전등록자와 현장등록자들을 나눠 안내를 해주어서 혼동이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자 전원에게 명찰과 에코백을 나눠주었습니다. 에코백 안에는 콘퍼런스 안내 책자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통역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역기는 이번 콘퍼런스 발표자 두 명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꼭 필요했었죠. 그리고 주관기관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조배터리가 들어있었어요. 센스 넘치는 선물에 기분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행사장 풍경>

인포메이션에서 더 들어가면 홍보 부스가 나옵니다. 앞서 소개했던 다섯 개의 국학 관련 기관의 홍보부스들이 특색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홍보부스 앞에는 다양한 안내 책자 등이 놓여 있어서 부담 없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것을 약간 꺼리는 소심한 사람들도 있는 법이거든요.

홍보부스에서 더 들어가면 간이 카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가장 센스가 돋보인 부분인데요. 간이 카페에 따뜻하고 시원한 음료들과 군것질거리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참, 물론 강연장 안에는 먹을 것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발표는 열한 시부터 시작이었는데 10시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인포메이션에서 잘 통솔해준 덕분에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도 금세 잘 정리되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자료집과 선물이 담긴 에코백〉

첫 번째 발표는 전통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의 실례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에르완 드라 빌레옹(Erwan de la Villeon)이 맡아주었습니다. 에르완 씨는 연 150만 명의 관람객('11년 기준)이 찾는 세계적 역사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한 'PUY DU FOU(퓌드푸)'의 국제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퓌드푸는 중세 마을 컨셉의 테마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르완 씨는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스케일과 화려한 색감, 그리고 웅장한 음악으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에르완은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지역의 아픈 역사를 오늘의 문화로 승화시킨 것이 그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제작 과정과 운영 노하우를 소개했습니다. 전통적 소재들을 어떻게 테마파크에 적용했는지, 그리고 테마파크 건설로 인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에르완 드라 빌레옹>



<주진오 교수>

두 번째 발표는 한국 전통문화 자산의 가치와 그 가능성에 대해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주진오 교수가 맡았습니다.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님이라 그런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발표자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진오 교수는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 자산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교수의 재치 덕분에 다들 소소하게 웃으면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진오 교수는 한국 전통 문화 자산의 가치와 활용의 가능성을 이론과 정책에 기반을 두어 소개했습니다. 주진오 교수가 요즘 여러 트렌드를 실례로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어느 다른 발표보다 구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통문화 정책의 한계를 말하면서 이야기 마케팅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을 배려해서 몇 부분을 생략하고 서둘러 발표를 끝냈는데, 조금 아쉬기는 했지만 다음이 점심시간이라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관계로 세 타임으로 나뉘어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저희는 마지막 타임이었고 2시 10분부터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장소는 전시관 B2층 ‘나무’ 라는 식당. 점심 메뉴가 뭘까 기대하면서 꼬불꼬불 길을 찾아 갔는데, 색이 고운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점심 메뉴 선택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추장도 밥도 따로 나와서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으면서 맛있는 식사 시간을 즐겼습니다



<오후 강연을 앞두고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점심>

밥을 먹고 돌아오자마자 성석제 작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박시백 작가님이 발표 하셨는데, <전통 기록 자료의 가치와 활용을 위한 조건>이란 섹션 제목에 맞춰 <조선왕조실록의 가치와 현황, 그리고 활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시백 작가님은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기록 자료의 가치와 창작의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만화 <조선왕조실록>의 만화화 계기부터 조선왕조실록을 공부하며 느낀 점까지 발표하신 후 우리나라 역사 연구와 보급의 빈약함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중간 중간 만화책에 나오는 그림들과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구성하는지 그림으로 보여주셔서 듣는 내내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석제 작가>



<박시백 작가>

20분 정도 휴식 후에 두 번째의 섹션 <전통 기록 자료의 활용 가치와 문화산업적 성공 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발표엔 미국의 정치 드라마 House of cards 의 제작자인 MRC(Media Rights Capital)의 Joe Hips 총괄 부사장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Joe Hips 부사장은 역사 콘텐츠 제작을 위한 협업 시스템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발표하면서 미국의 시나리오 작업 시스템과 매체에 따른 콘텐츠 생산의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의 이미지들이 나와서 이목을 끌었고 발표를 Q&A로 준비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 힉스(Joe Hips)와 송주호 모데레이터의 대담>



<정현민 작가>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여섯 번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하 사극 <정도전>의 정현민 작가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현민 작가는 드라마 <정도전>을 중심으로 역사와 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창작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도전이 흥행에 성공한 이유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다시 재분석하고 사극의 의미와 제작 전력, 기존 정통사극과의 차별화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정현민 작가님 발표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사극은 사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작가의 체험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흥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새로 발견된 사료가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료가 드라마라는 형식을 만나 상업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발표까지 끝난 뒤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함께 하는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상 보다 10분 정도 늦었지만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는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김수영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방식은 콘퍼런스 사전등록시 참가자들에게 받은 질문을 추려 사회자가 대신 질문을 하고, 이에 발표자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중 두 질문만 추려보았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정혜원씨는 박시백 작가에게 질문을 남겼는데요.

Q : “박시백 작가님께 질문 드립니다. 전통 기록 자료 가운데 오늘날 특히 의미 있는 콘텐츠는 무엇이고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 “제가 아는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밖에 없어서 그것에 대해 밖에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실록은 엄청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무사하게 전해진 것이 참 감사한 점이지요. 문제는 실록이 여전히 실록에 묶여 있고 일반인들에게 잘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더 많은 분들이 실록의 바다에 뛰어들어 귀한 보물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관련 종사자 김현정씨는 성석제 작가님께 질문을 남겼습니다.

Q : “성석제 작가님, 한국 문학 원형에 대한 자료들이 한정되어 있어 심도 있는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작가님께서도 작품을 쓰실 때 부족한 자료로 인해 집필이 때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작가적 상상력으로만 작품을 이어가시는지요?”

A : “역사 자료는 물론 작가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냥 불을 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계속 원형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그것 또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써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조금 더 자유롭게 쓰려고 합니다.”

사전질문 이외에도 객석에서의 질문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종합토론 1시간을 훌쩍 넘겨 콘퍼런스 폐회식까지 마치자 6시였습니다. 오늘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 역사 자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또한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통해 생산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발표 덕분에 심도 깊은 이해와 큰 공감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옛 기록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발표와 토론〉 그림 송동근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취재(1) 창작자들에게 듣는 옛 기록의 '이야기'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이진아, 연태영



<질문을 받고 있는 국내외 창작자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전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국학기관들의 성격에 따라 전통문화 자산의 활용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콘퍼런스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의 개최는 전통 자료를 통해 창작과 관련된 문화 바탕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자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내외 전문 창작자들과 전통기록의 가치와 문화산업의 활용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서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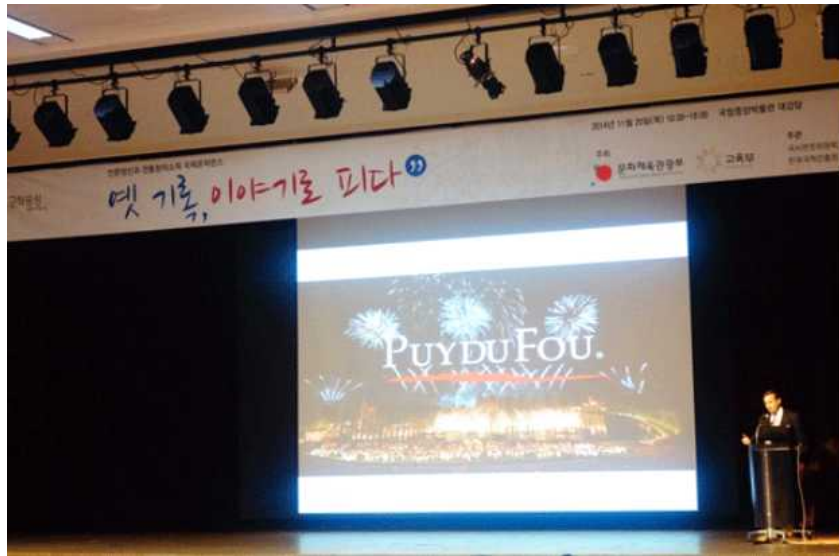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 책자>

에르완 드라 빌레옹(Erwan de la Villeon) - “역사를 드라마화 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획과 아이디어 중요”



<발표를 하고 있는 에르완 드라 빌레옹>

PUY DU FOU는 프랑스 서쪽 방데 지방의 레 제페스에 위치한 역사테마파크이다. 푸뒤푸는 중세시대 지역의 자연과 역사를 스토리텔링한 테마파크로 국제기구인 관광레저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가 선정한 2012년도 THEA 어워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78년 ‘방데전쟁(1793)’을 소재로 창작된 야외 서사극 ‘시네세니’ 상연을 목적으로 역사 마을을 조성하여 연평균 방문객 150만명(2011년 기준)을 끌어들이는 세계적인 테마파크이다.

마케팅 매니저 에르완 드라 빌레옹(Erwan de la Villeon)은 푸뒤푸 테마파크의 잊혀진 지역의 역사를 알리는데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역사문화 콘텐츠가 지역의 역사를 드라마화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획과 아이디어의 활용방안을 설명했다.

주진오 교수 - “이야기 산업시대, 보편적 감성과 정서를 담은 한국적 스토리텔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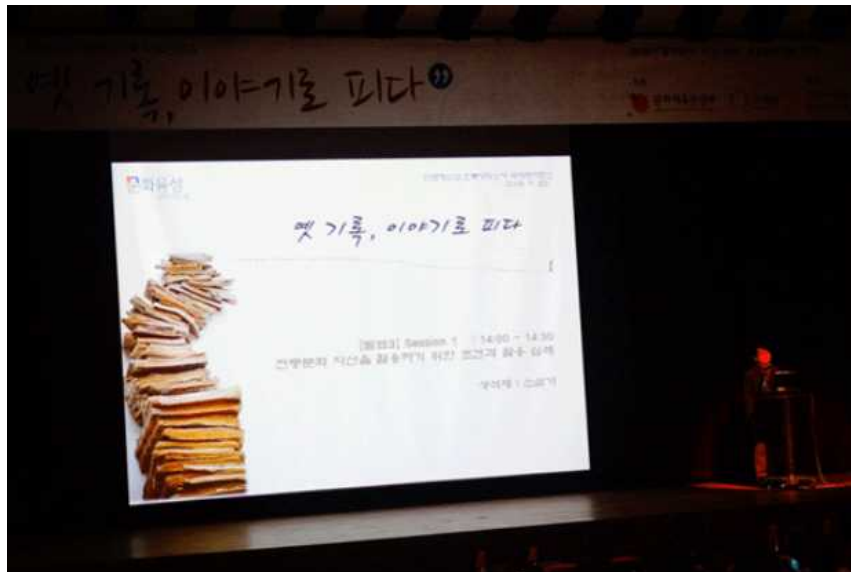
<발표를 하고 있는 주진오 교수>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해외로 퍼지면서 전통 문화

의 가치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전통문화자산의 가치는 고유한 형태의 정체성을 담보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성을 증명한다. 스토리텔링, 디지털기술을 접목시키어 나가면서 고유한 문화자원인 전통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콘텐츠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은 문화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 보편적 가치를 재해석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등 고대 역사 기록과 신화 그리고 문학 작품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도 알려지지 않는 전통 이야기와 현재의 트렌드를 접목시킨다면 세계적으로 한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의 문화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잘 보여준 콘텐츠가 드라마 '대장금'과 만화 '신과 함께'이다. 이 작품들은 국내에서 시작해 해외에서도 보편적 감성과 한국 전통문화 요소를 알리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한국적 스토리 콘텐츠를 위해 현대인과 세계인들에게 맞는 글로벌 콘텐츠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한국의 전통문화를 콘텐츠의 이야기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성석제 소설가 - “10년 후 알게 된 한 문장의 의미, 숙제를 마친 듯”



<발표를 하고 있는 성석제 작가>

소설가 성석제는 1995년 <문학동네>에 단편<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한국일보 문학상, 동서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오영수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작가는 고전에 관심이 많으며, 웃음과 해학 등 위트가 강한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으로 통한다.

작가는 고향의 역사와 인물, 사회와 문화의 변천상을 집대성한 상주지(尙州誌)나 각 집안의 자료를 토대로 만든 인물지(人物誌)를 보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아름다운 단초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인 성석제 작가>

단편소설 <해설자들>에서 ‘(충성된) 조상과 상관없이 후손의 마음 됨이 충성스럽다면 어찌 고상하지 않으리오마는(不係世累 雖日高矣), 근원(정몽주)이 맑으니 그 뒤의 흐름(부인)도 맑은 법이고(源淸之流), 뜻대가 바르니 그 아래의 그림자도 곧은 법(表正之影), 어찌 관계가 없다고 하겠는가(豈無所關哉).’

Q : 뜻을 모르는 한 문장을 10년 후에 알게 되어 “해설자들”이라는 소설까지 쓰셨잖아요. 문장의 뜻을 알아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성석제 : 오래된 숙제를 해결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네트워크 같은 거예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맥과 연결, 연결이 되어 있지요.

Q : 한국사 관련 기관들이 모여 관련 기록을 쉽게 정리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석제 : 생각보다 큰 규모의 행사 같은데, 다양한 관점으로 다채롭게 조명하는 게 좋은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출발이 심화되고 전통 문화가 적극적으로 연결된다면, 거기서 어떤 집단지성 같은 걸 통해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알아야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알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시백 만화가 - “실록의 기록, 그 사이사이의 가치를 발견”



<인터뷰 중인 박시백 작가>

박시백 작가는 10년 작업을 통해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만화(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 담아냈다. 박시백 작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와 현황 그리고 활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작가는 사극 ‘왕과 비’(1998~2000)를 보고 조선사에 관심을 갖게 돼 조선사, 특히 조선 정치사를 만화로 만들게 됐다고 한다.

Q : 창작자들에게 추천할만한 소재의 한국사 이야기가 있나요?

박시백 : 저는 실록 사이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인물도 실록을 통해서 보면 새롭고 깊은 애기들이 많이 있어요.

Q : 한국사 관련 기관들이 모여 관련 기록을 쉽게 정리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시백 : 옛 기록들이 제대로 번역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콘텐츠가 더 풍성해지고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실록 2차 번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번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Joe Hips 부사장 - “효율적인 협업시스템을 통한 콘텐츠 제작”



<조 힙스(Joe Hips) 부사장은 송주호 모더레이터와 문답형태로 강연을 진행>

Joe Hips(조 힙스)는 미국 정치드라마 의 제작사인 MRC의 드라마제작 총괄부사장이다. 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드는 ‘하우스 오브 카드’로 시작해서 ‘하우스 오브 카드’로 끝난다.”며 극찬한 드라마이다. 2013년 넷플릭스(NETFLIX)가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37억 5000만 달러의 순수익을 올렸다. Joe Hips 부사장은 이번 강연에서 미국의 시나리오 작업 시스템과 매체에 따른 콘텐츠 생산의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창작 현장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전통 기록자료의 가치를 조망한다. 현재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시장을 겨냥하려면 한국의 독자적인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민 드라마 작가 - “정사를 훼손하지 않는 적절한 허구, 역사사료에 대한 체계적 접근 필요”



<발표를 하고 있는 정현민 작가>

정현민 작가는 2014년 KBS 1TV 정치사극 <정도전>의 작가이다. 그리고 ‘2014 코리아드라마어워즈’ 작가상을 수상했다. 정현민 작가는 <정도전>을 통해 역사 인물들의 심리와 성격을 현대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

석해냈다.

드라마 <정도전>은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춰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리고 <정도전>은 입체적인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우리 시대에도 볼 수 있는 다양한 성격과 상황을 참조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다고 보았다.

Q : 정도전의 기록을 찾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정현민 : 큰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정도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대중 서적도 이미 5권 이상 나와 있어서요. 소설은 표절 할까 봐 2차 창작물은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용운 선생님의 책을 거의 너털너털 해지도록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삼봉집을 사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건별로 논문들로 봤죠. 예를 들어 요동정벌을 보면 학자마다 입장이 달랐잖아요? 특별히 어려운건 없었고요. 다만 정도전과 관련된 실록의 기록 행적이 묘연할 때가 몇 년 있었어요. 그것도 중요할 때, 위화도 회군 때 기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전제 개혁할 때 조준이 많이 보이는데 이 분은 척불(불교를 배척함) 정도를 제외하고 표면에 잘 안 나왔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화할지 상당히 어려웠어요.

Q : 다음 작품도 전통사극을 하실 예정인가요?

정현민 : 다음 작품으로 전통 사극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드라마 산업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들은 역사만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기획 단계에서 해외 수출을 겨냥하고 만들기에 중국과 일본에도 수출해야 하는데 역사만을 이야기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욕심은 가급적 정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허구가 가미된 민중 사극을 해보고 싶습니다.

Q : 오늘 주최한 기관들의 한국사 콘텐츠를 혹시 다음 작품 구상에 활용하실 건가요?

정현민 :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도 자료집을 따로 받았었는데 어디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저런 자료가 잘 축적되어 있다고 안내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드라마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 자료를 보조 작가들이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조 작가들과 감독에게 여기 자료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면서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취재(2)
5개 공공기관 전통창작소재의 구축과 활용
한국사 정보의 보편화, 새로운 창작과 상상의 “불씨”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홍아영, 김정아

지난 11월 20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인문정신과 전통창작소재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옛 기록, 이야기로 피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5개 기관이 협력하여 개최되었다. 이 기관들은 협업을 통해 옛 기록을 다양한 주제의 정보로 제공하고 있어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쉽게 다가가고 있다.

2013년에 개최된 ‘이야기 한국, 전통창작소재 콘퍼런스’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은 이번 콘퍼런스는 각 주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 소재들을 통해 창작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 및 토론이 더해져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옛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콘퍼런스 참석자로 북적이는 행사장 로비



<각 기관의 홍보 부스를 둘러보는 사람들>

5개 기관 소개

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문헌을 수집, 정리, 번역하여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번역하여 읽힘으로 인해 가치가 생기는 고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소중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한국고전번역원의 목표이다. 1966년 《연려실기술》번역을 시작으로 근 이천 권에 달하는 책을 번역, 출판하였다. 또한 번역자 양성을 위한 국역연수원을 개원한 이래 2012년까지 1,400여 명의 번역자를 양성하여, 졸업생들이 번역사업 및 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감각 있는 전시물>



<한국고전번역원 하승현 실장 인터뷰>

황금알 같은 고전 속 가치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간한 전문정보를 종합한 고전적 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는 대중들이 우리 고전에 손쉽게 다가와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전문헌의 대중화에 앞장서 국내는 물론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도 한국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콘텐츠기획실에 강성득 선임연구원은 “이번 콘퍼런스가 창작자와 기관과의 연계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든다”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한국고전번역원 부스엔 커다란 황금알들이 눈에 띄었는데, 콘텐츠기획실 하승현 실장은 황금알을 가리키며 “요즘 우리 고전을 소재로 해서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고전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 찾아보면 모두 황금알과 같은 소중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소재가 찾기 어렵다는 창작자들이 있다면 광맥과 같은 소재들이 이 안에 있으니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한, 대중과 창작자들에게 앞으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곧 마련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 현안에 대해 올바른 역사자료로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 2006년에 출범한 공공법인이다. 역사 연구와 정책개발 및 동북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방지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하고 발굴해낸 자료들은 온라인에 게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역사 강연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하기도 한다.

이 기관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바, 그 중 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은 한국사의 테두리를 넘어 동아시아의 틀 속에서 주변국과의 관계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누구라도 원문 자료를 통해 쉽게 역사현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의 양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른 미디어들을 이용하여 소개하고 홍보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자료를 보는 행사 참석자>

협업을 통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사는 물론 한국 문화의 기원을 찾아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상호 존중하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이웃나라들의 한국사 인식을 연구하고 공영의 관점에서 올바른 한국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역사 현안들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열심히 협업하여 발굴하고 보급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올바른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한 노력이 가장 뜻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독도체험관과 동북아역사자료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문화에 관한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해 1978년 출범하였다. 대학원 대학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한국학대학원, 장서각,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학지식정보센터, 한국학학술정보관 등의 조직을 두고 한국학 전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장서각은 규장각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적 문화재 수장고로, 조선 왕실도서관인 구 장서각에 소장되었던 것을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다. 장서각에 소장된 모든 자료는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학전자도서관은 장서각 및 도서관 소장 약 40만 책의 목록과 고서원문, 출판 도서, 고문헌 해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학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학대학원을 통해 한국학을 알리고 부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지원 및 사업마련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구하고 편찬해낸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소설들은 EBS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하고 대중 교양서 시리즈로 출판되어 보다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양창진 연구원 인터뷰>

흥미로운 이야기 발굴과 더불어 콘텐츠의 소재가 되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번역하고 연구하여 장서각에서 추려낸 다양한 콘텐츠들은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에 간단한 검색 한 번으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다. 그로 인해 재미 있는 통계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흥미를 줄 수 있다. 또한 그런 연구들은 각종 문화 콘텐츠의 소재가 되고 있다. 장서각의 소설들은 단지 이야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궁녀들의 글씨는 한글의 궁체라는 폰트로 활용되었고 디자인의 요소로도 쓰이며 문화상품을 만들 때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양창진 연구원은 “고전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연구에 힘쓰며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4.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은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한 민간소장 국학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문화시대에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제 내년 개원 20주년을 맞는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향촌의 일상사나 생활사 등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문서와 일기류, 문집류, 목판 등을 수집, 보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자들 및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자료들을 DB로 구축하여 제공한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교넷(<http://www.ugyo.net/>)에서는 다양한 갈래의 유교 문화권에 대한 유적, 인물, 유물, 테마영상, 체험관광정보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소장 자료는 주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인들의 기록들인데 그 중 “스토리테마파크”는 조선시대 일기류 번역 결과물들을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소재로 가공했다. 그로 인해 창작자들은 모티프를 얻거나 단위 장면들의 세밀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이정철 연구원 인터뷰>

역사는 공간이 달라지는 여행과 유사, 원천소재는 고전에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의 흩어져있던 6만 여장의 목판들을 모아 현재 장서각에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했다. 한국국학진흥원 이정철 책임연구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기본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아야 한다. 그 삶의 형태가 같다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도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록이 바로 고전인 것이다. 역사는 어쩌면 여행과 비슷하다. 공간이 달라지는 여행이 있다고 한다면 역사는 시간이 달라지는 여행이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편견을 깰 수 있다”고 힘있게 말했다. 또한 “현실에 맞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천 소재는 고전에 있다고 믿기에 고전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고전이나 역사를 오늘날에 맞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전통을 열어 미래를 여는 것이다”고 말했다. 많은 문서들을 번역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방대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제 시작일뿐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여러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수집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부 소속 기관이다. 국내외 산재해 있는 역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급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사의 주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배너>



<국사편찬위원회 김성희 연구원 인터뷰>

콘텐츠의 원재료 제공, 일반 대중들에게도 쉬운 형태로 제공, 나아가 해외까지

콘텐츠의 원재료 제공, 일반 대중들에게도 쉬운 형태로 제공, 나아가 해외까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자, 역사 교사, 그리고 한국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과 일반 대중뿐 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제공한다. 연구 사료 수집하기, 사이트 알리기, 역사 교사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역사 콘텐츠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 유교넷,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동북아역사넷, e-규장각 등 규모가 큰 사이트에서부터 작지만 특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많다.

콘퍼런스에서 만난 김성희 연구사는 “워낙 많은 자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단일 기관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한국사 관련 작업을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역사는 어렵거나 고리타분하다라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개방되어 있는 자료들에게 접근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